

THE SALVATION ARMY ANNUAL REPORT



 구세군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7 구세군빌딩 15층 커뮤니케이션스부

T. 1600-0939 H. www.jasunnambi.or.kr E. sponsorship@salvationarmy.kr

 @christmas_kettle  @ChristmasKettle  https://blog.naver.com/christmas_kettle

THE SALVATION ARMY

이웃을 향한 차별 없는 나눔,
당신과 함께

CONTENTS

06	HISTORY
08	이웃을 향한 차별없는 나눔
10	- 국내지원
26	- 긴급구호
28	- 해외지원
32	당신과 함께
34	- 우리 집은 위험한 집
36	- 마음온도 37도 캠페인
38	- 구세군자선냄비
42	기관소개
44	재정보고

더 가까이, 더 따뜻하게
후원자님의 마음이 필요한 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차별없는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HISTORY

대한민국의 굴곡진 역사와 함께 성장을 거듭해 온 구세군,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림 없이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1908

구세군 한국군국 시작
(세계구세군 42번째 지역지)
1907년 선교를 위해 일본 순회 중이던
구세군 창립자 윌리엄 부스를 한국인
유학생들이 찾아가 고통받고 있는 동포들을
구해달라며 한국 구세군 창설을 요청했습니다.



1916

구세군 한국군국 최초의 여자 실업관 설립
천대받던 여성의 인격과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1918

한국 최초 아동 복지시설 개원
결인 아동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고아원(현 서울후생원)을 세워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1921

건전생활 캠페인 시작
금주와 금연을 강조하는 구세신문 특집호를
배포하고 절제운동을 촉구하는 가두 행진을 벌였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범국민적 전국 캠페인입니다.

1924

한국 제1호 공익법인
구세군 유지재단 법인 설립인가(제1호)
대한민국 제1호 법인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1926

한국 최초 미혼모 시설 설립
여성 복지사업 시작
윤락여성을 위한 여자관을 설립하고
미혼모 시설을 개소했습니다.

1928

한국 최초 자선냄비 활동
자선냄비 시작(경성 20개소,
모금액 848원 67전)
서울 명동에서 한 달 간의 모금액으로
매일 약 130명의 노숙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1934

구세군 영동 종합병원 개원
의료사업 시작



1950~1959

한국전쟁 피난민 구호 사업 전개
16개 무료 급식소를 운영, 한국전쟁으로
굶주림과 실의에 빠져있던 아동, 노동자,
극빈자들 50만 명에게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1960

부랑아, 결인 급식소 사업 전개

1995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자 긴급구호
심장병 어린이 의료지원 사업 시작

1997

재활용 사업 '꿈을 심는 장터
(현, 희망나눔미)' 시작



1998

IMF 외환위기 실직자 쉼터
'다일사(다시 일어서는 사람들)' 개관
에이즈 예방활동 시작

2008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 그룹홈
'디딤돌' 개원

2010

서울시 최초 부자 공동생활 시설
'구세군 한아름' 설립



2011

노숙인 중독인 재활 및 자활을 위한
'일죽쉼터' 개관

2012

구세군 해외봉사단 '드림해피' 발족

2014

구세군 위기상담 센터 개설
세월호 현장 긴급구호 활동

2018

노숙인을 위한 쪽방상담소 개관
(돈의동, 남대문)

2019

자선냄비 스마트 모금 시작

2020

코로나19 위기극복 캠페인 전개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2022

해외 긴급구호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지원
파키스탄 대홍수 피해 복구

국내지원

긴급구호

해외지원



구세군

이웃을 향한
차별없는 나눔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 대송면 긴급구호 현장

아동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맞춤형 복합문화공간



mom편한 꿈다락

낙후된 지역아동센터를 맞춤형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디지털 기반의 ICT 공간을 조성하여 아동들의 온, 오프라인 학습발달을 돕습니다.
마음껏 텃밭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꿈다락은 아이들의 안정감과 자존감을 높여주는 꿈의 아지트입니다.

🏠 맞춤형 공간개선

지역아동센터의 특징과 필요에 맞춰 낙후된 공간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는 리모델링 진행

💻 기자재 지원

각 센터마다 필요한 학습 인프라 구축(컴퓨터, 영상/음향 시스템, 도서, 책걸상 등)

📖 정서지원 프로그램

- 가족관계강화 프로그램 : 새롭게 조성된 공간을 활용하여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 문화체험 프로그램 : 문화공연, 전시회 등에 아동을 초청 또는 방문하여 새로운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

검단산길 지역아동센터



마리아 지역아동센터



2022년 지원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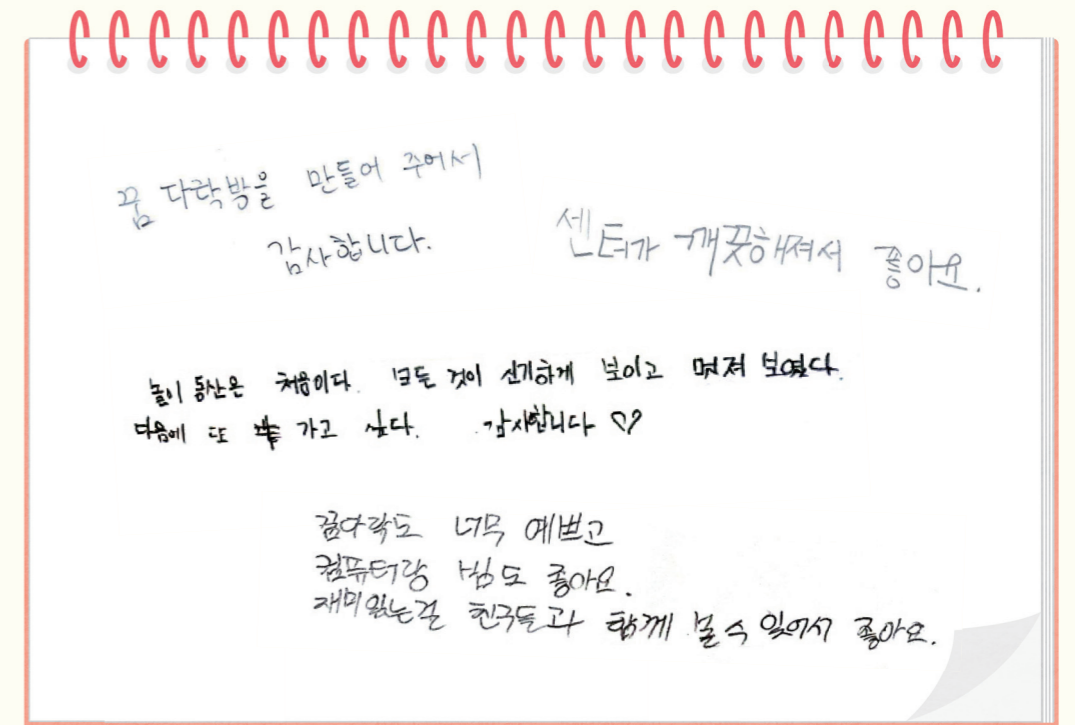
13개소

2022년 지원 인원

38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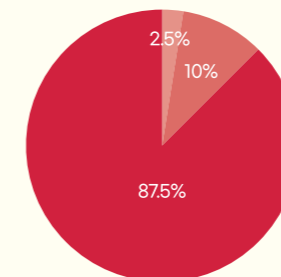
후원 : 롯데지주

꿈다락이 가져온 좋은 변화 “꿈다락방이 있어 꿈을 꿀 수 있어요”



새로워진
지역아동센터에서
안락함과 행복감을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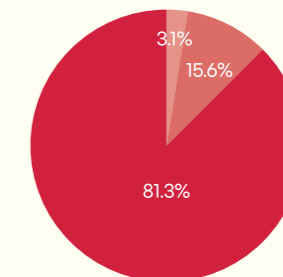
매우그렇다
87.5%



그렇다 **10%**
보통 **2.5%**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의 행복
증진에 도움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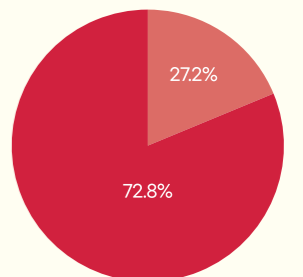
매우그렇다
81.3%



그렇다 **15.6%**
보통 **3.1%**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관계에
좋은 변화가
생겼다

매우그렇다
7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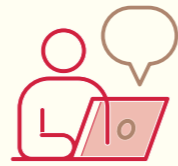


그렇다 **27.2%**

■ 보통 ■ 그렇다 ■ 매우그렇다

국내지원
아동·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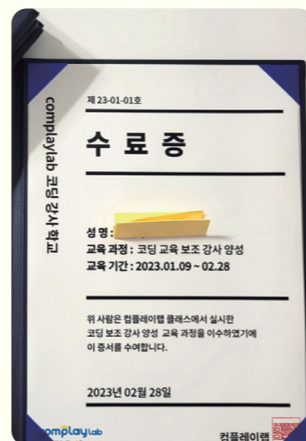
희망찬 내일을 위한 동행 프로젝트
디지털 교육지원



아동보육시설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은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기 어렵기 때문에 진로선택 과정에서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양육시설 아동 100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이해, 코딩 로봇을 통한 동화 기획 등과 같은 디지털 코딩 교육을 지원하고, 참여 청소년들의 자격증 취득과 실습 등을 통해 학습이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디지털이라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고, 삶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교육받은 것들이 그들의 삶에 잘 융합되어져서, 자립했을 때에는 새로운 창조물들이 그들의 삶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전공을 하든, 하지 않든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그들의 삶을 잘 지탱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혜생원 생활지도사



2022년 지원 인원
11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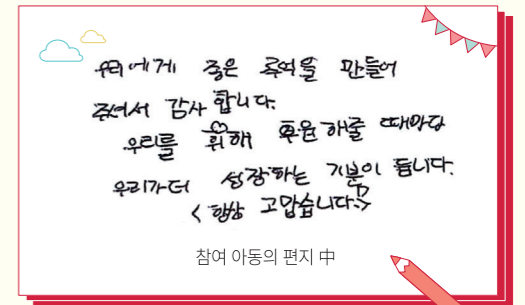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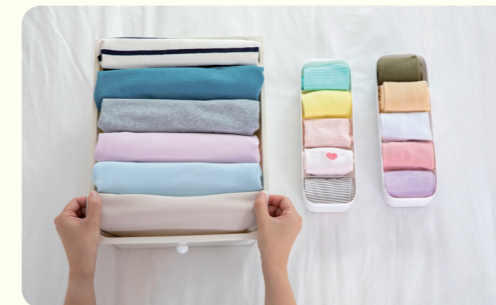
후원 : 신한은행

국내지원
아동·청소년

학대피해아동 지원



아동학대 건수는 안타깝게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루 평균 103명의 아이들이 학대를 받고, 피해아동쉼터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구세군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안정을 위해 생필품, 심리치료, 문화체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필요물품 지원

학대 피해로 시설에 입소하는 아이들은 현장에서 보호자와 긴급하게 분리되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시설에 입소하게 됩니다. 시설 적응에 필요한 피복과 생필품, 심리치료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아동의 불안을 줄이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화체험 지원 <해피투게더>

피해 아동들은 심리적으로 불안정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고, 다양한 경험이 부족해 문화복지로부터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위해 23곳의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문화체험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여행, 관람, 공연 등 아이들에게는 많은 일들이 ‘처음’이었는데요. 이 소중한 경험들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라 따뜻하게 이어지기를 소망해봅니다.

2022년 지원 개소
23개소

2022년 지원 인원
94명

**사회라는 더 큰 세계로
자립준비 청소년 보금자리 지원**

아동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고등학생들이 안전하게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자립 교육 프로그램과 자립 준비 금액을 지원합니다. 자립 선배의 멘토링, 모의 면접,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받으며 자립에 대한 걱정을 덜어내고, 매월 통장에 적립되는 지원금을 통해 퇴소 시에 더 나은 주거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022년, 11명의 퇴소 아동들이 보금자리 지원금을 통해 더 나은 보금자리에서 내일을 꿈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립에 대한 걱정보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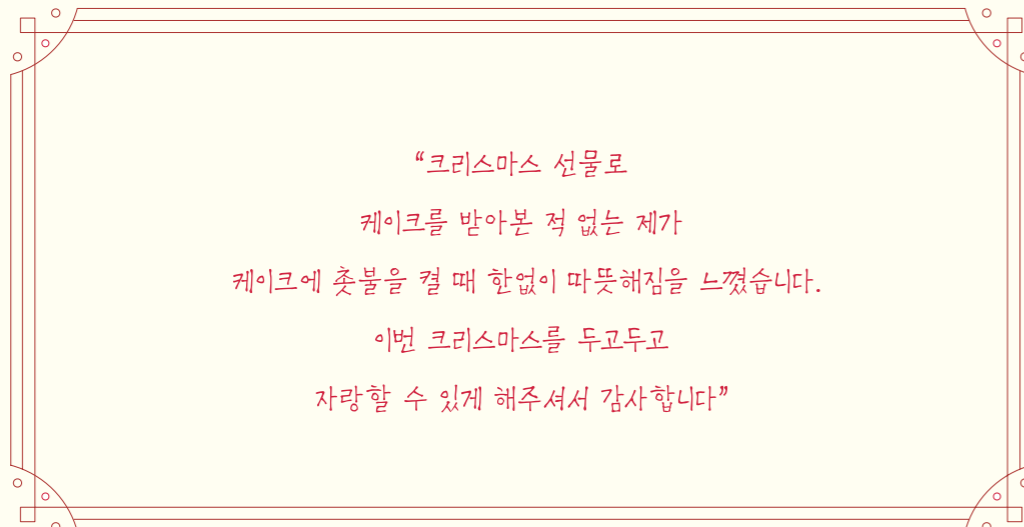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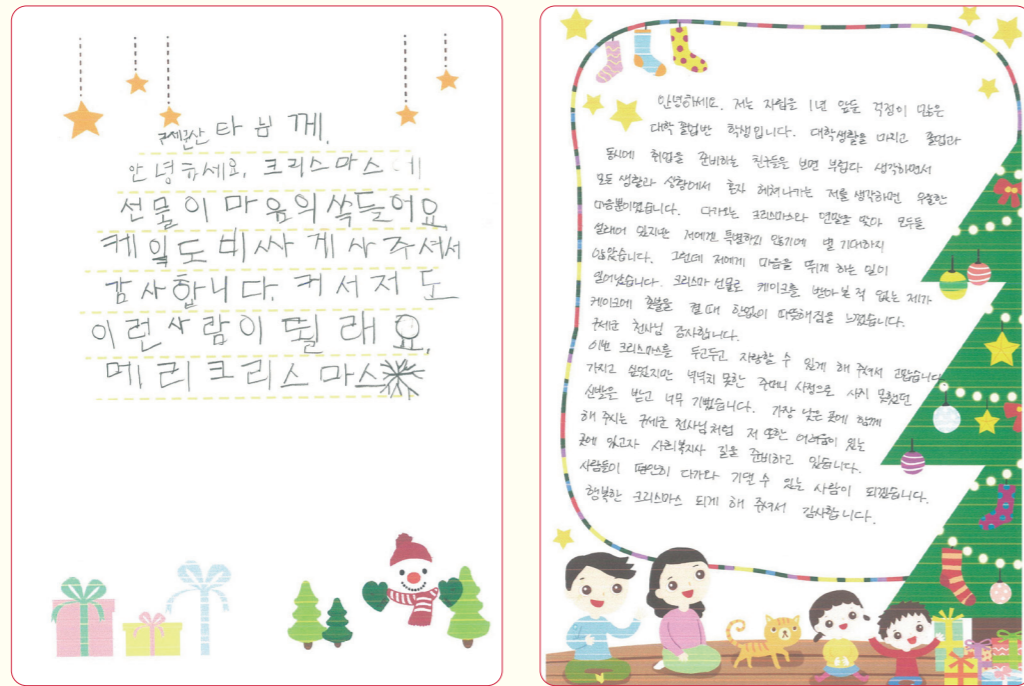
총 지원 인원
38명

그룹홈 크리스마스 선물 이벤트

메리 레드 크리스마스



그룹홈은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소규모로 보호하는 공동생활가정입니다. 모두가 설레는 크리스마스, 올해 10곳의 그룹홈 아이들은 특별한 산타를 만났습니다. 늘 똑같은 선물을 받던 아이들이 이번만큼은 꼭 받고 싶었던 선물을 받고, 크리스마스 파티를 즐겼습니다.



2022년 지원
10개소

2022년 지원 인원
51명



여성·다문화

구세군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상처를 입은 여성들을 보호하며 회복되고 존중받는 삶을 살도록 돕고 있습니다. 생활 터전을 제공하고 건강한 정서를 위한 상담, 자립을 위한 교육을 지원합니다.

여성의 집
가정폭력 피해가정
상담 및 교육 지원

부모교육 집단 상담(자기돌봄, 의사소통기술)을 통해 가족간의 건강한 상호작용을 배워 아동과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고 보다 나은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 지역전담지원센터**

성매매 피해자의 연령층이 낮아짐에 따라 아동, 청소년의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정기적인 아웃 리치를 통해 성착취 환경에 놓인 아동, 청소년을 발굴하고 구조하며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이 일상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설 수 있도록 24시간 상담과 법률 의료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미혼모자 가정 웨딩 촬영
For mom 프로젝트

2022년 지원 인원
51가정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족들이 예쁜 가족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홀로 생계와 가사,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엄마가 이 날 만큼은 자녀와 마주보고 앉아 사진을 찍고 웃으며 돈독해지고, 일상 속에서 당당한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함께하는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국내지원
노인·장애인

중증 장애인들의 첫 장거리 여행

난생처음 휠체어AIR 타고



일대일 돌봄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들에게 장거리 나들이 경험은 손에 꼽고 기억할 만큼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특히 제주도는 비행기를 타고 이동해야 하기에 휠체어 장애인들에게는 요원한 여행지이기도 합니다. 올해 구세군과 함께 중증 장애인 분들의 첫 비행기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밤잠을 설치며 손꼽아 기다리더니, 2박 3일 동안 제주바다와 폭포 등을 보고 연신 '베리굿'을 외치며 끊이지 않던 웃음과 여행사진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짓는 모습은 오래도록 남을 행복한 기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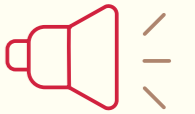


2022년 지원 인원
15명

국내지원
노인·장애인

난청인 인공와우 수술비 지원

와우 소리 선물 캠페인



소리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중요한 것입니다. 소리 없는 삶은 고립으로 이어지게 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감소시켜 치매 위험도 높입니다. 구세군은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이웃들 중, 고도·심도 난청으로 인해 청력을 잃어 보청기로도 재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인공 와우 수술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박기철(가명)입니다. 딸로부터 신장을 이식받기 위해 검사하던 중 파브리 병이라는 희귀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완치법이 없어 매월 주사를 맞아야했지만, 11월에 인공와우 수술을 받고 지금은 열심히 동영상 재활치료도 잘 보고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치료해서 지금보다 편하게 듣고 대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술비 지원 절차



서류접수
신청서 다운로드
및 서류제출



서류심사
의료급여 및
소득심사



결과 안내
심사 결과
안내



지원
수술금액
지원

2022년 지원 인원
18명

후원 : 코클리어코리아

모르던 글자를 알게 돼서 행복해요
평생교육 아카데미

무료하게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에게 여가생활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을 증진시키고 보람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프로젝트

8개

인원

713명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장애인 역량강화 및 자립지원

중증 장애인들이 오감자극을 통해 대소근육을 발달시키고, 자기 만족감과 표현력, 자립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연간 재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프로젝트

4개

인원

211명

국내지원
위기가정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자선냄비 긴급지원



지역사회에 숨겨진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저소득 가정을 위한 생계비와 주거비, 의료비를 지원해 기초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긴급지원 선불카드를 사용해 위기가정이 꼭 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매하고 긴급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선냄비 긴급지원은 2023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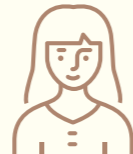
“장애인도 차별없이 지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시각 장애를 가진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정신 장애 남편 김수철(가명)님. 비싼 치료비와 약값을 감당하기 버거웠지만 구세군의 긴급지원을 통해 급한 치료도 받고 생활비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 올곧고 바르게 잘 키우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이 되면서 아이를 지키기 위해 구세군에게 도움을 요청한 한기성(가명)님. 자선냄비 긴급지원 캠페인을 통해 관리비 미납금, 건강보험금 등 긴급한 상황을 해결하셨습니다.



전용카드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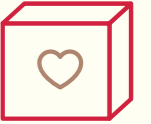


- 블록체인 기반 충전식 선불 카드 (BC카드)
- 지원금 사용내역 조회 가능
- 유흥업소 등 부적절한 결제에 대한 방지 기능 삽입 (클린카드)

2022년 지원 인원
304명

국내지원
위기가정

명절 나눔



연말 거리 자선냄비로 모이는 따뜻한 사랑의 온기는 명절 때 소외된 이웃들에게 제일 먼저 전달됩니다. 명절이 되면 혼자라는 외로움을 더욱 크게 느낄 이웃들을 찾아가 우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년 설과 추석마다 소외이웃을 위한 명절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 온 구세군은 앞으로도 이웃을 위한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설 나눔

떡국 떡과 과일, 밀키트 등 명절음식으로 구성된 나눔 키트를 사회복지시설과 구세군 지방본영을 통해 전국 11,000 가정에 전달했습니다.

추석 나눔

추석나눔키트에 사과, 배, 한과류 등 추석에 맞춘 식자재와 라면, 김 등 기초적인 식자재를 담아 7,800 가정에 전달했습니다.

금융권과 함께하는 추석 나눔

금융기업들과 함께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신영시장을 방문해 떡과 과일 등 식료품을 구입하며 상인들을 격려하고, 구입한 식료품과 온누리 상품권을 20여개 사회복지 시설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수해 피해가 심했던 동작구 성대시장도 방문하여 물품을 구매하며 갑작스런 피해로 어려움을 당한 상인들을 위로하고, 약 400여 명의 인근지역 수재민에게 전달하였습니다.



2022년 지원 시설
20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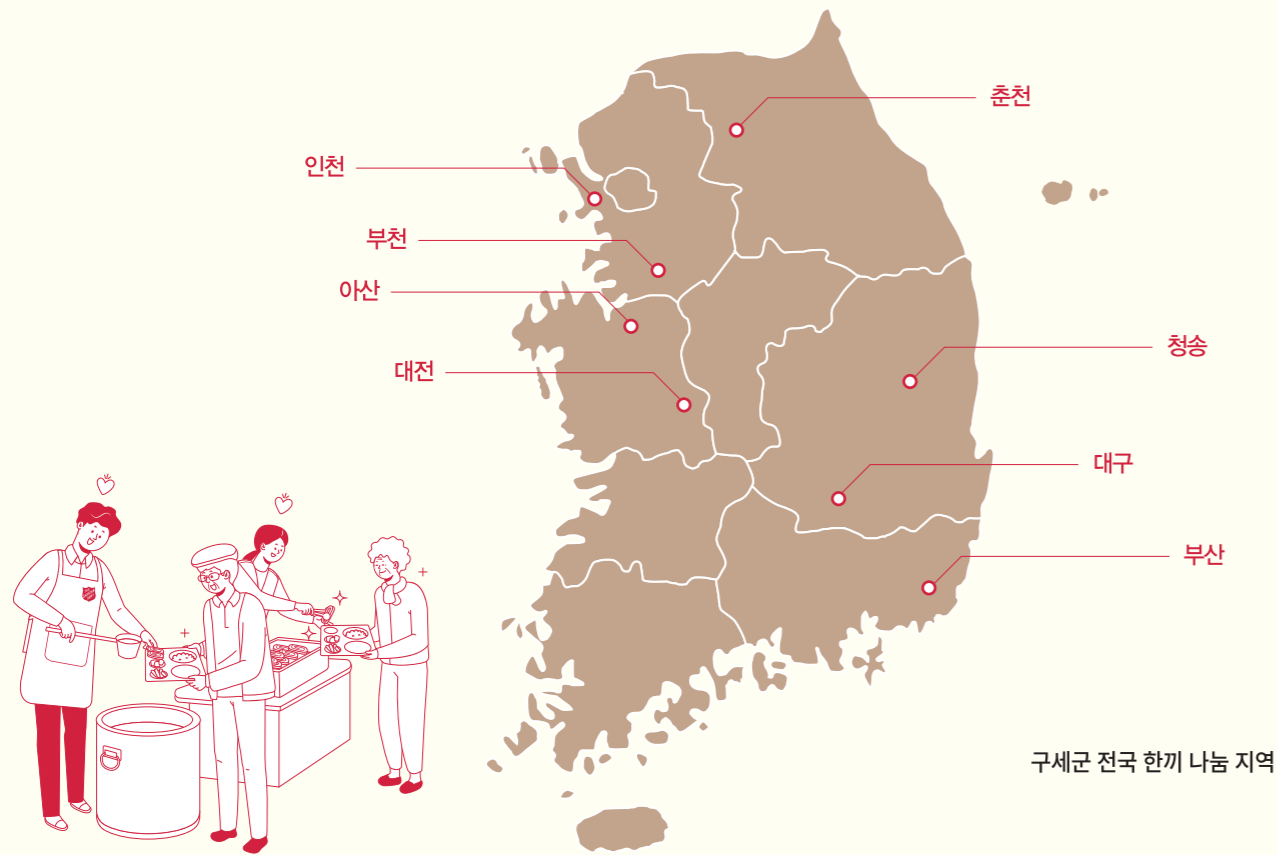
2022년 지원 인원
19,200명

국내지원
위기가정

따뜻한 밥 한 끼에 담긴 진심 무료 급식지원



1918년 극빈자 급식소를 개소하여 여성과 아동에게 식사와 숙소를 무료로 제공하였고, 1950년대 전쟁 중에도 피난민들을 위한 급식을 지원했던 구세군은 먹이는 일에 진심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밥 한 끼에 담긴 온정을 느끼며, 든든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구세군은 오늘도 전국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원 인원 (매주)
1,000명



국내지원
지역사회
기후변화

누구나 안전하게 꿈을 꿀 권리 꿈꾸는 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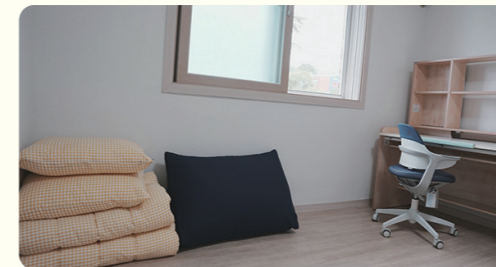
우리 이웃이 안전하고 건강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후되고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고 리모델링을 지원합니다. 일상의 시급한 문제에 가려 뒷전으로 밀려나기 쉬운 환경을 개선하여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등 시설 이용자들의 육체적 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군산후생원(51호점)

Before



After



부전 행복나눔센터(55호점)



칠곡 노인의 집(56호점)



총 지원
68곳

2022년 지원
18곳

국내지원
지역사회
기후변화

폐현수막과 폐의류의 업사이클링

작은도서관



개관 100주년을 맞은 남산도서관이 구세군 작은도서관 73호점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남산도서관 2층 옥외 휴게실에 '남산하늘들'로 조성된 작은도서관은 폐현수막과 폐의류 업사이클링을 통해 만든 건축 자재를 사용, 도서관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환경 호르몬에 노출될 걱정 없이 독서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친환경 공간으로 탄생했습니다.



총 지원
73곳

후원 : 롯데홈쇼핑

-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 온라인 작은도서관
- 롯데 홈쇼핑 폐의류를 통해 만들어진 섬유패널로 도서관 가구를 제작하여 친환경 도서관을 조성.
- 태블릿 PC와 각 수혜처 이용 인원 수에 맞는 온라인 작은도서관 ID 지원(도서예약, 희망도서 지원)

국내지원
지역사회
기후변화

이웃을 위한 나눔이 되는 자원순환 캠페인

구세군도 슈퍼모아



구세군은 2022년 11월 지속 가능한 환경보호를 위해 수퍼빈과 MOU를 맺고 '수퍼모아 캠페인'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세군이 선정한 10개 기관에서 순환 자원(페트병)이 모이면 수퍼빈에서 회수 및 소재화를 진행합니다. 이때 구세군 기관에는 포인트가 누적되고, 이 포인트는 현금화되어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됩니다. 수퍼빈의 선한 의지와 구세군의 가치가 만나 진행되는 '수퍼모아'는 쓰레기 재활용을 통해 환경도 보호하고, 선한 사업의 자금으로도 적립되는 일석이조의 캠페인입니다.

“수퍼모아를 통해 구세군의 환경에 대한 가치가 실현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아름다운 자연과 미래세대를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송탄영문 봉사자들은 매일 페트병을 주워 세척하고 분리하면서 다음세대를 위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실천은 구세군이라면 당연히 참여해야 할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구세군송탄영문 황순이 사관



시범운영
10개 기관

국내지원
지역사회
기후변화

격오지 국군장병의 문화 플랫폼

청춘책방



최전방 GOP, 해안 소초 등 격오지에서 근무해 문화적 혜택을 받기 어려운 장병들이 병영생활을 하는 동안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고 꾸준한 자기계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독서 공간, 스터디 공간, 음악 감상 공간, 휴식 공간을 갖춘 병영도서관을 전국 11개 부대에 설립했습니다.



총 지원
76 곳

2022년 지원
18 곳

후원 : 롯데지주

국내지원
소외 및
불평등의
완화

사회 복귀와 독립적인 생활을 돕는 노숙인·중독인 지원

실직자 및 노숙인들이 사회에 복귀하여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거리 상담을 진행하고 노숙인 시설과 상담 센터를 운영하며 입소자들의 건강검진, 응급치료, 일자리를 알선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세군 성인재활센터(ARC, Adult Rehabilitation Center)에는 각종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입소하여 새로운 삶으로의 도약을 위한 생활 관리와 각종 상담, 재활치료와 직업치료에 참여합니다.

프로젝트

9 개

지원인원

1,498 명



편드매너저 생활을 했으나, 가정불화로 일을 그만두고 실의에 빠져 음주와 빚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일용직으로 며칠이 생활을 하다가 2021년 쉼터에 입소했습니다.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생활비를 벌었고 신용회복과 취업 교육을 통해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지금은 반도체 부품 설계 업체 취업하여 현재 중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씨의 이야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터전으로
쪽방 생활인 지원

굿봄 캠페인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쪽방촌, 급식소 등을 찾아 나눔을 진행하는 굿봄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컵라면, 달걀, 생수, 영양제, 소독제 등의 생필품으로 구성된 나눔 키트를 약 6,000여 가구에 전달했습니다.

여름나기 키트 지원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대로 된 식사나 피서를 할 수 없는 쪽방촌 주민들이 에너지를 얻고 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름철 대표 보양식인 삼계탕과 스포츠 타월, 파스, 이온음료 등이 포함된 여름키트를 800여 가구에 전달했습니다.



지원 인원

7,300 가구

에이즈 예방교육 및 감염인 지원

가족들에게도 감염 사실을 쉽게 알리지 못하는 에이즈 감염인들이 여가활동 프로그램 및 정서 지지 프로그램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에이즈 및 성 매개 감염 예방교육전 문강사를 양성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인들에 대한 편견 및 차별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감염인 지원
153 명

에이즈 및 성 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
101 회 / **6,603** 명



우리 이웃의 일상회복을 위하여

재난·재해 긴급구호

산불,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와 전쟁, 대형 재난으로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이들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달려갑니다. 급식, 간식, 세탁, 수유 및 상담실 등의 운영을 통해 긴급구호 현장에서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재난상황이 종료된 후에도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캠페인을 기획하고 실행합니다.



3월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

삼척지역 이재민들에게 긴급구호 텐트를 설치하여 잠자리를 제공하였고 대피소에 대피해 있는 170명에게 식사와 긴급구호 키트, 구세군 컵라면, 생수를 제공했습니다. 울진에서는 구세군경북지방 긴급구호팀과 함께 대피소에 있는 이재민 및 봉사자 약 400명에게 따뜻한 식사와 세탁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8월 서울 동작구 수해

피해지역 주민들과 복구작업을 하고 있는 군인, 경찰,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 지원 1,220명



8월 충남 부여 지역 수해

장마로 산사태 피해를 입은 부여군 은산면 지역의 이재민들을 위해 구호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피해 주민들과 자원봉사자, 도로가 끊겨 고립된 마을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9월 경북 포항 수해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 지역을 방문하여 긴급 구호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이 모두 상해 당장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었던 대송면 주민들과 수해복구 자원봉사자들에게 도시락과 라면, 생수를 지원했습니다.

☝ 지원 6,000명



5개 부

134개국

미주부 Americas and Caribbean Zone
미국,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칠레 등

유럽부 Europe Zone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아태부 South Pacific and East Asia Zone
한국, 호주, 홍콩, 일본, 싱가포르 등

남아시아부 South Asia Zone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아프리카부 Africa Zone
가나, 케냐,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해외지원

구세군은 1947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에서 특별협의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를 부여 받은 국제 기관입니다. 국제분부는 영국에 있으며, 5개 부로 나뉘어 134개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세군 한국군국은 아시아·태평양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파트너를 맺은 군국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전 세계적으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해외지원

1:1 결연하기



새로운 가족, 마음과 마음을 잇다

아동 1:1 결연



구세군의 아동 결연사업은 국내아동은 물론이고, 캄보디아와 몽골의 아이들과도 끈끈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양육시설 아이들과 결연후원자를 1대1로 결연하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놓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결연후원이 시작되면 소중한 인연으로 맺어진 아이의 정보를 전달받고, 매년 발송되는 <성장발달보고서>를 통해 마음으로 이어진 아이의 성장과정을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결연을 꾸준히 이어가시면 아동이 자립할 때까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구세군 홈페이지를 통해 구세군의 아동결연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저에게 도움을 주시는 후원자님은
저를 보호하는 산이며 울타리예요“

몽흐솔드(몽골, 6세)



2022년 결연 인원

172명

해외지원

모든 난민의 필요를 채웁니다

우크라이나

지난 3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소식은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고, 한 해가 넘어가도록 슬픔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세군은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차별 없이 돕고 있습니다. 음식, 위생, 실질적인 조언과 정서적인 보살핌을 제공하고 구세군이 활동하는 모든 유럽 국가에서 난민들의 필요에 즉각 대응하고 있습니다.



난민 지원 국가
11개국

실행 프로젝트
85개

개인 지원
160,730명

구호품 수송 **15**회
독일, 폴란드, 프랑스에서 우크라이나로 식품 및 위생 용품, 의류 및 침구, 발전기, 정수 필터 및 기타 전기 장비 등을 수송

물품 지원 **11**개국
식사 : 식품 꾸러미 93,000개, 식사 682,000명
위생키트 : 64,000개 이상
비식량 품목 : 학용품, 침구, 의류 및 SIM 카드 105,000개

바우처 지원
131,000개

쉼터 지원
18,000명 이상

정서적 지원
15,000명

해외지원

구세군 한국군국은 몽골과 캄보디아 두 나라에 대표부를 설치하여 희망과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씻어도 마셔도 안심인 <식수지원 사업>



캄보디아 식수지원 캠페인은 전국 약 3,600개 파리바게트 매장에 설치된 자선냄비 모금함에 모인 성금을 통해 진행됩니다. 캄보디아는 식수가 부족하고 물에 석회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깨끗한 물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Tnout Chrum 마을 초등학교에 새롭게 설치된 급수대를 통해 초등학교 256명 뿐 아니라 마을 주민들에게도 좋은 식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병원 건강식 지원

매일 전국에서 500~700명의 어린이가 찾아오는 어린이 무료병원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어린이에게 필요한 영양 만점의 건강식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병원을 찾은 어린이들과 가족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상처도 보듬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식 지원 **12,000**명 / 어린이병원 1곳

몽골

울란바토르 주간아동복지센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미취학 아동돌봄, 방과후 학교 돌봄, 노숙인 급식 지원을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돌봄과 정서적 지지를 통해 아동들은 한층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저소득 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 돌봄 **90**명

학교 방과 후 돌봄 **50**명

노숙인 급식 지원 **90**명

데이케어센터/청소년센터



청소년 센터 2곳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기본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학비를 지원합니다.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은 기본적인 돌봄과 교육의 권리를 포기하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센터에서의 학업을 통한 성장은 물론 본인과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전인적인 인격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제가 고아원에 있던 10년동안 가족들은 한 번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이곳에서 나를 컨트롤 하는 법을 배우고 있고, 다른 아이들이 저와 똑같은 상처를 받지 않도록 마음껏 사랑하고 도움이 되고 싶어요”
캄보디아 씨엠립 청소년 센터 ‘라비’



당신과 함께

2022년 11월
캄보디아 타안콕 초등학교

우리 집은 위험한 집
마음은도 37도 캠페인
구세군자선냄비

〈우리 집은 위험한 집〉 캠페인

위험한 집에서 꿈꾸는 우리집으로

집은 보호받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안전하지 않은 집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언제라도 쓰러질 것 같이 허물어진 지붕과 벽, 비닐로 어설프게 덮어 막아 둔 창문.

구세군은 〈우리 집은 위험한 집〉 캠페인을 통해 아동의 위험한 집을 안전한 보금자리로 바꾸고 아이들이 안전한 집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꿈꾸는 우리집을 짓는 나눔 꿈나무

‘꿈꾸는 우리집’은 우리 집은 위험한 집 캠페인 후원자와 꿈나무 기부자님들의 소중한 나눔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어린 꿈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모여 따뜻하고 안전한 우리집이 만들어집니다. 꿈나무 기부는 부모님이 자녀의 이름으로 기부하여, 자녀가 나눔의 인성을 가지고 바르게 성장하도록 돕는 기부 프로그램입니다.

꿈나무
68 그루

“우리 아이가 자신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었어요”

꿈나무 기부를 신청한 부모님의 편지



원진이의 꿈을 지켜주는 집

Before

5년전, 원진이의 아빠는 지병의 악화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외국인인 엄마는 세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를 막막함에 마음의 병까지 얻었습니다. 갈라진 외벽과 낡아 부서진 지붕, 흙으로 군데군데 메워 둔 벽, 갈라진 틈 사이로 스며드는 냉기는 원진이 가족을 움추러 들게 했습니다. 전기선이 드러난 어두운 창고는 허약한 엄마가 넘어져 다칠 수 있었고, 깨어져 물이 새는 번기는 늘 사고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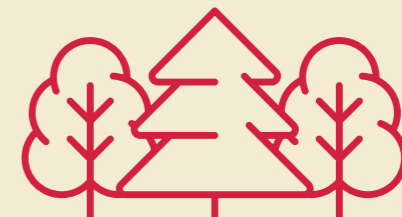



After

이번 공사로 집안의 많은 부분이 새로워졌습니다. 위험한 지붕과 외벽, 허술한 처마, 화장실이 교체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더 의지하고 협동하며 지내게 되었고 청소와 정리정돈으로 물품들을 제자리에 놓고 살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깔끔하게 수리된 부엌에서 원진이에게 따뜻한 간식을 만들어 줍니다. 원진이는 예전과 다르게 어질러진 방을 바로 정리하며 깨끗해진 방에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아플 때 남을 도와주는 것을 보고 간호사의 꿈을 꾸게 되었다는 원진이는 이렇게 자신의 꿈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원진이 엄마가 보내온 문자가 모든 변화를 알려줍니다.

“살아갈 힘 받으세요(받았어요)”



〈마음온도 37도〉 캠페인
추운겨울 따뜻한 선물, 0.5도 

체온 36.5도에 마음온도 0.5도를 더해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온기를 선물하는 캠페인입니다.
 연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겨울 추위를 버텨내고 있는 저소득 가정과 복지센터 아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1만원 이상 후원하는 분들에게는 목도리 키트를 제공하고 완성한 목도리는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과 복지시설 아이들에게 전달합니다.



캠페인 참여
6,813명

난방비 지원
280가정

난방설비 지원
93곳

@maumondo37_campaign

전하고 싶은 말
 (혹은 후기작성)
 친구,
 따뜻한 겨울 보내요
 목도리를 뜨는 동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전하고 싶은 말
 (혹은 후기작성)
 추운겨울
 따뜻해지세요용~
 감기조심
 이목도리받고아프지마

“목도리 감사합니다. 잘 받았어요!”



몽골 바항주르프구 구립 고아원



폭설이 내리고 추운 날에도 따뜻한 온돌에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찬물이 아닌 미지근한 물로
 씻을 수 있었어요.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 전남 영암군 조*아 어린이 가정

저희는 기름보일러로 주로 난방을 해결합니다.
 특히 올 겨울은 혹독한 한파로 인해 예년보다
 난방비가 더 많이 들었을 뿐 아니라 난방 등유 값도
 많이 올라 적잖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지원받은 난방비로 근처 주유소에서 등유를
 구입하여 기름을 채워 넣었습니다.
 덕분에 따뜻하게 보냈습니다.

- 전북 고창군 임*호 어린이 가정

난방비를 아끼려고 추위도 난방을
 넉넉히 틀지 못했는데 올해는 다른 해보다 따뜻하게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천식이 심한
 둘째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옷도 구입하여 아이들 요긴하게 잘 입혔어요.

- 경남 창원시 이*진 어린이 가정

겨울이 되면 난방비 걱정으로 따뜻한 옷들을 꺼입고,
 이불을 뒤집어 덮어 쓰곤 했는데 올해는 도움을 받아
 예전보다 훨씬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 충북 청주시 조*경 어린이 가정

반지하 특성상 옷풍이 심하고 방도 냉골이어서
 한 겨울 생활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난방비 지원 덕분에 가족들이 따스하게 지냈어요.
 따뜻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안정되는 겨울이었습니다.

- 수원 장안구 강*하 어린이 가정



12월의
자선냄비

이 겨울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착한 일

Post

전국 **360** 곳

자원봉사자

45,000명

2022 구세군자선냄비 시종식 꿈나무 기부자와 함께 올린 사랑의 종소리

2022년 12월 1일, 100년 가까이 멈추지 않고 달려온 구세군자선냄비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시종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시종식은 어려운 이웃을 향한 작고 소중한 나눔의 실천이 '올 겨울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착한 일(Ring the Bell of Your Heart)'이라는 메시지를 나누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기부나 후원이라는 단어 대신, 어린이의 시선에 맞는 '착한 일'이라는 언어를 사용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나눔을 강조한 2022년 구세군자선냄비 캠페인은 전국 17개 도시 약 360여개의 포스트에서 한달간 진행되었습니다.

2022 구세군 POP-UP 나눔마을 훈훈한 K-겨울, 구세군에게 맡겨주세요!

2022년 12월은 거리마다 울리는 케틀메이트의 종소리가 그 어느 해 보다 따스하게 느껴진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위기감이 어느덧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간 첫 해였으며,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12년만에 16강에 진출하는 기쁜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이런 기쁜 소식에 발 맞추어, 구세군 한국군국은 한국에서 구세군이 처음 시작된 곳, 바로 지금의 강북삼성병원 이 있는 서울 종로구 평동, 돈의문박물관 마을에서 전시와 체험, 나눔교육, 크리스마스 마켓 등을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구세군 나눔마을>을 꾸미고 운영했습니다.

한옥을 배경으로 대형자선냄비, 구세군 포토월, 기부팝콘과 크리스마스 장식이 어우러져 K-겨울의 훈훈함을 한껏 뽐냈으며, 자선냄비가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나눔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본격 나눔 액션! 스페셜 자선냄비!

'특별한 방법으로 구세군과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스페셜 자선냄비에 참여해보세요!

재능 기부, 단체 봉사, 현물 기부, 장소 대관 등 어떤 액션이든 가능합니다.



휘슬러 '찾아가는 레드카페' 11/28 ~ 12/29

매년 12월이면 이색 자선냄비로 함께한 휘슬러에서 이번에는 '찾아가는 카페' 컨셉으로 한 달간 나눔에 동참했습니다. 서울 광장에 설치된 레드카페는 예쁜 디자인과 장식으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한 편, 실제로 무료 커피 등을 나누며 사랑의 온기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휘슬러 임직원들은 사옥에 자선냄비를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마음을 모아주었습니다.

※레드카페는 긴급구호 현장에서 이재민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도넛과 커피를 제공합니다.



12/17 미동초등학교 풍물동아리

추운 날씨 속에서도 야외공연을 통해 시민들의 나눔을 독려한 미동초등학교 풍물동아리. 그간 받았던 상금의 일부를 자선냄비에 기부했습니다.



12/17 가수 현진주님

구세군 홍보대사이기도 한 가수 현진주 님도 아름다운 노래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따뜻한 목소리로 마음에 위로를 건넸습니다.



12/24 TCC 합창단

국내 철강기업 TCC스틸의 사내 합창단인 TCC 합창단에서 아름다운 합창으로 스페셜 자선냄비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12/12 ~ 19 한국예술원

한국예술원의 교수진과 학생들이 교내에서는 자선냄비 모금을 진행하고, 나눔마을에서는 야외공연을 펼쳐주었습니다.



12/24 이은숙님 목소리 나눔

매년 손수 뜯 목도리를 기부해 주시는 이은숙님. 200개의 손뜨개 목도리는 기부자들에게 선물이 되어 돌아갔습니다.



12/31 가수 김장훈님

가수 김장훈 님이 2022년 마지막 날을 장식해 주셨습니다. 가수 김종서, 작가 정은혜 님 등과 함께 해 더욱 따뜻했습니다.

12/6 ~ 1/31 카페 레드파이프

12/21 여의도순복음교회

12/15 15사단 음악회

12/21 인디셈버 페스티벌

12/15 평신도 단체 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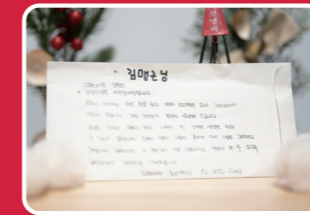
12/21 서부여성발전센터

12/17 역사어린이합창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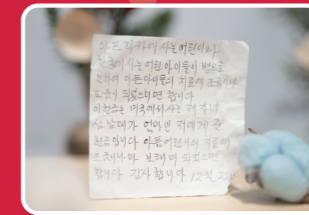
자선냄비에 담긴 따뜻한 이야기

12월 한달동안 자선냄비에 수많은 이야기가 담긴답니다.

이름 모를 분들이 마음을 가득 담아 보내주신 감사와 사랑의 인사를 나눕니다.



시절에서 생활중인
시각장애인 김명근님.
나보다 어려운 이들을 위해
용돈과 간식비를 모아
100만원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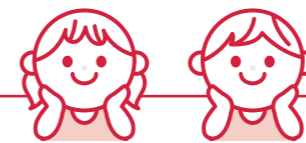


미국에 사는 삼남매가 엄마인
저에게 준 금액입니다.
아픈아이들의 치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의 달 캠페인

따뜻한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사랑의 종소리를 교회와 함께 울립니다.

가장 소외된 곳에서 힘겨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이웃과의 사랑에 동참하고자 하는 교회는 어디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 나눔교육

어린이가 '꼬마 기부천사'가 되어 자선냄비에 직접 나눔을 실천합니다.
아이들이 어려운 이웃을 생각할 줄 아는 건강한 가치관을 형성 하고,
나눔의 의미를 배우며 이 사회에 건강한 나눔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참여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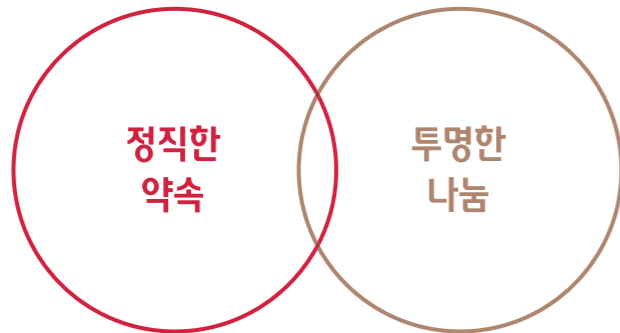
21곳

참여인원

1,495명

기관 소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차별 없는 나눔으로 함께하는 구세군. 5가지 원칙을 나침반 삼아 기부금을 투명하게 운영하여 세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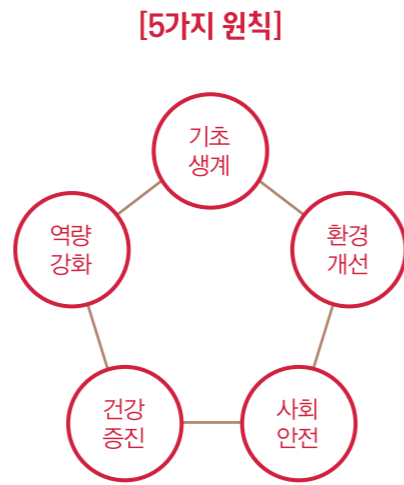


[MISSION]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VISION]

세상 가장 낮은 곳과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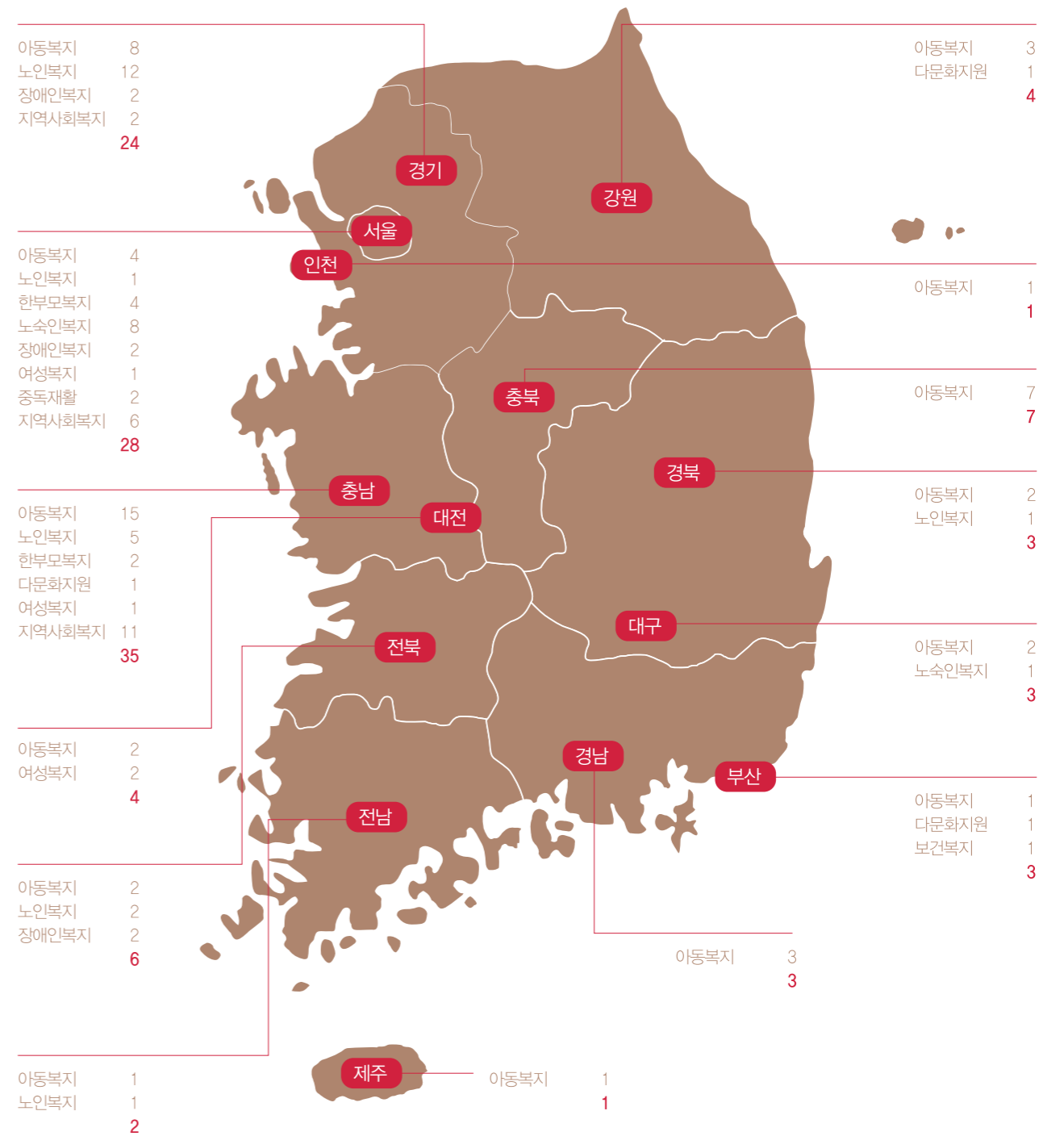
한국신문방송인클럽과 전국 SNS기자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에서 구세군자선냄비는 대한민국 사회발전을 위해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 12월 13일 사회봉사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구세군유지재단법인인 혜천원, 두리훙과 같은 미혼모 보호사업을 통해 가족의 가치를 일깨우고 확산시켜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5월 10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구세군 한국군국은 코로나19로 나라와 국민이 어려운 시기에 자선과 복음으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온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2020년 7월 6일, '제 9회 국민 미션어워드(국민일보 주최)' 사회공헌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국내 사업기관 현황

124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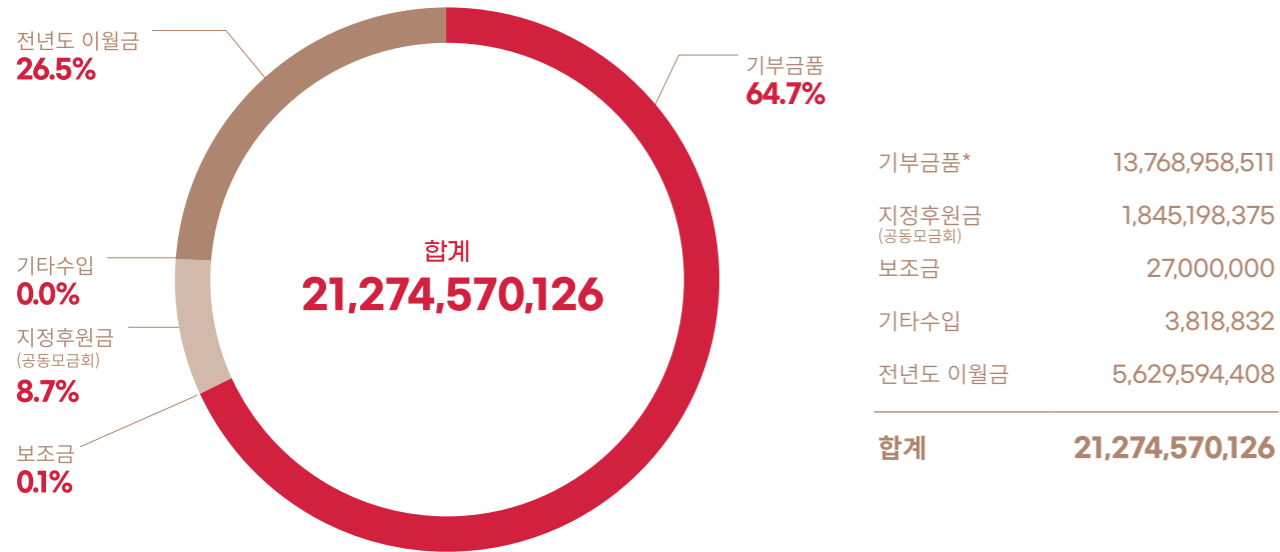


2022 재정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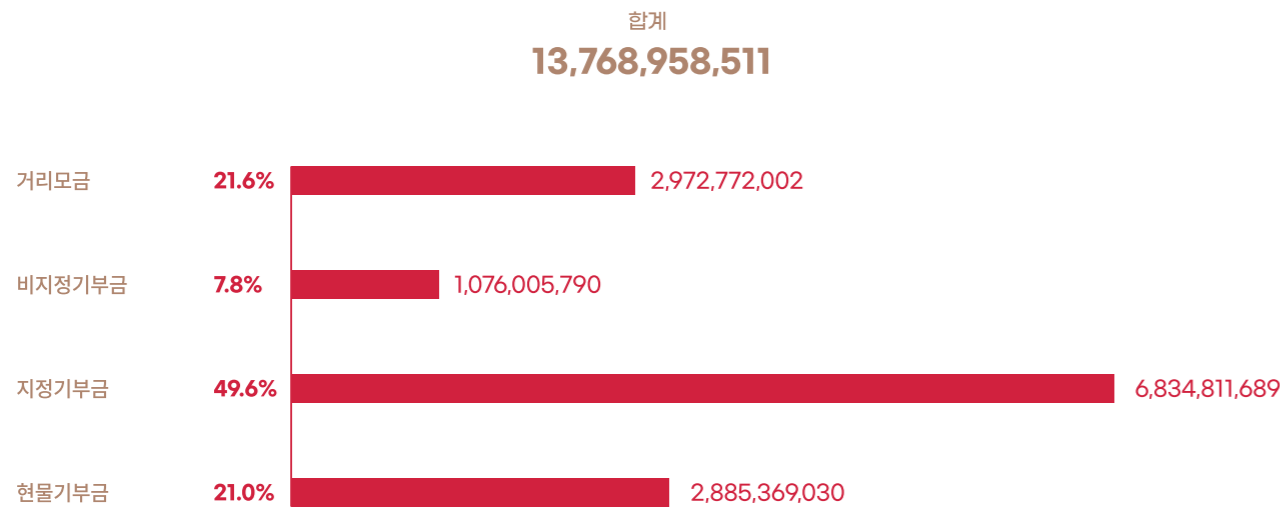
구세군은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인 구세군복지재단을 운영하며 예산과 결산을 구분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재정보고는 각각의 예산내역을 합한 금액입니다.

기간 : 2022.01.01-2022.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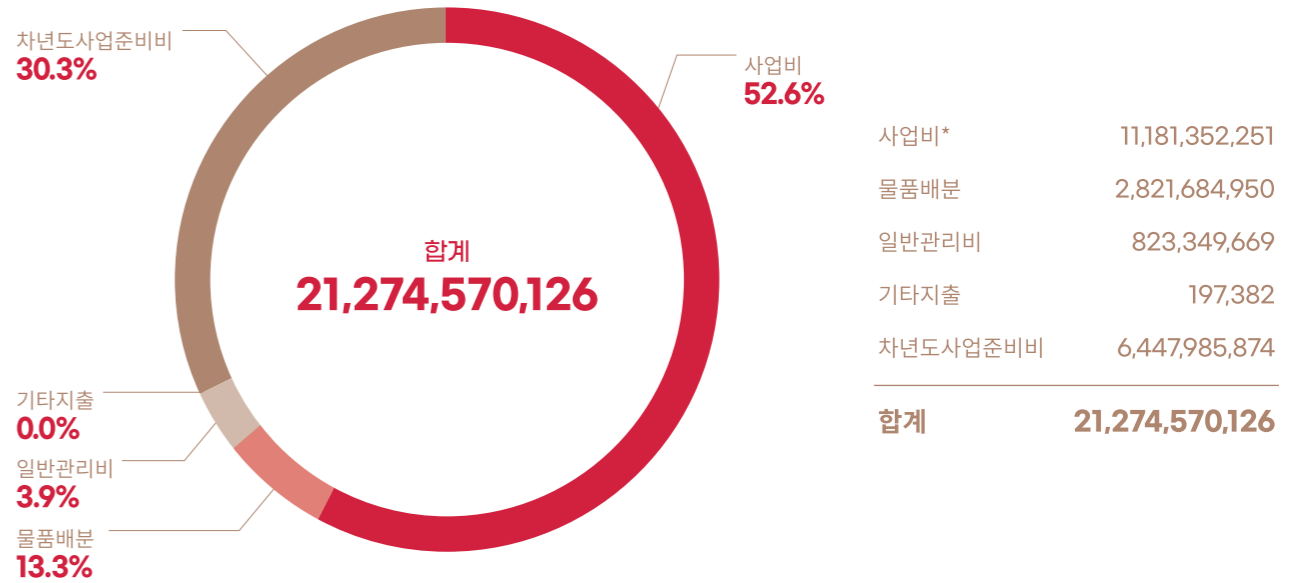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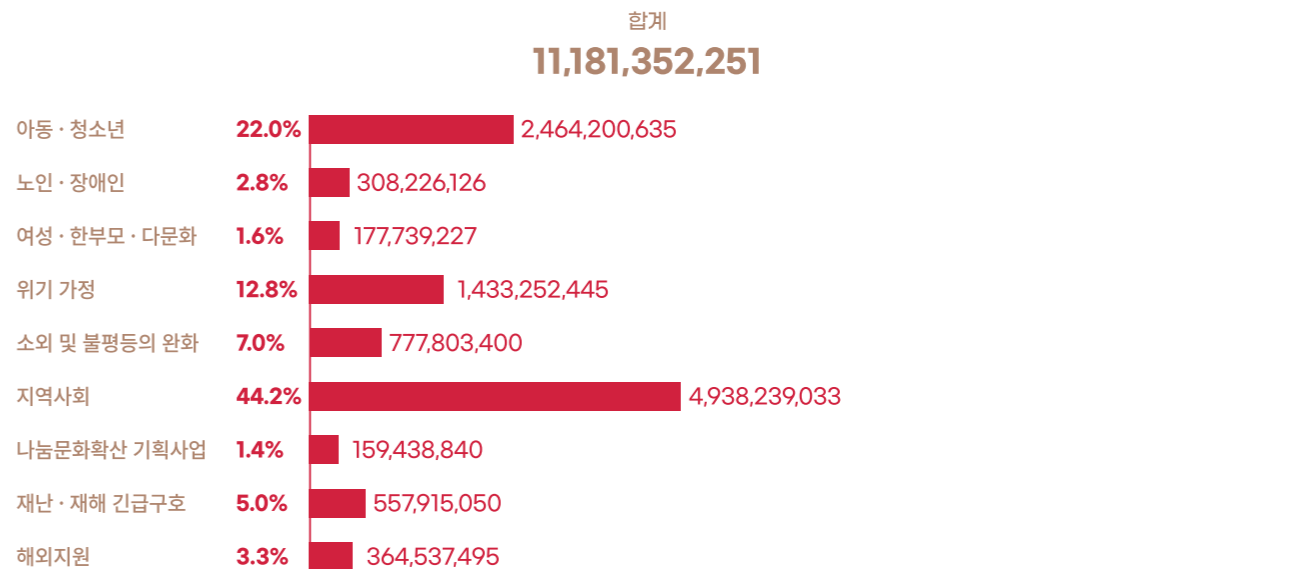
[기부금품 상세]



[지출]



[사업비상세]



우리, 함께해요!

[참여형]



케틀메이트(KETTLE MATE)

12월이면 변치 않는 약속처럼 거리에 선보이는 자선냄비. 사랑의 종을 울리며 자선냄비를 지키는 사관 곁에서 함께하는 자원봉사자가 바로 케틀메이트입니다. 구세군 자선활동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은 뒤 활동하게 되는 케틀메이트. 울겨울, 따뜻함을 깊이 간직하고 싶다면 케틀메이트가 되어 보는 건 어떨까요?

일시 및 장소, 봉사 시간 선택 가능 / 최소 1타임(2시간)

[참여 혜택]

1. 봉사활동 공인시스템(1365,VMS)을 통한 봉사 시간 인정
2. 봉사시간에 따른 감사 선물 증정



찾아가는 자선냄비 나눔교육

해마다 11월 중순에서 12월까지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학원의 아이들을 찾아가 자선냄비 나눔 교육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직접 '꼬마 기부천사'가 되어 자선냄비 기부에 동참할 수 있는 나눔 프로그램입니다. 미래를 열어갈 우리 어린이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스한 마음을 키우고 건강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참여형 교육의 장입니다.

[참여 혜택]

1. 원아들에게 구세군 나눔증서 발급
2. 유치원 및 어린이집 후원증서 발급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사랑의 달 캠페인

사랑의 달 캠페인은 거리모금 시즌에 교회와 자선냄비가 연합하여 자원봉사와 모금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교회봉사자들과 협력하여 교회에서 사랑의 종소리를 울리고, 성탄의 기쁨을 소외된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활동입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교회라면 어디든 신청이 가능하며 교회 안에서의 자선냄비 모금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자선냄비 모금 및 봉사활동에 참여 희망하는 교회와 일정 조율하여 진행

신청 기간: 11~12월

참여 문의 : 대표전화 1600-0939, 이메일 redkettle@redkettle.kr

후원 함께해요~

[후원형]



정기후원

지원 대상을 선택하여 약정된 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합니다.



결연 후원

아동과 일대일 결연으로 아이들이 꿈꾸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기업후원

기업가치 및 구세군의 캠페인 방향성에 따라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합니다.



물품후원

기업 및 개인의 물품을 후원합니다.



일시후원

지원 대상, 금액을 자유롭게 선택해 일시 후원합니다.



꿈나무후원

부모님이 자녀의 이름으로 후원하여 자녀가 나눔의 인성을 가지고 바르게 성장하도록 돕는 후원입니다.

후원 신청 방법

[나눔계좌]

국민은행 011201-04-130120(예금주: (재)구세군유지재단법인)
※ 계좌후원 시, 기부금영수증은 아래 후원문의를 통해 별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ARS 후원]

060-700-9390
(통화 당 3,000원)

후원문의

대표전화 1600-0939 | 후원자팀 02-6364-4101, 4072

※ 구세군은 기부자님들의 후원내역에 대한 연말 세액공제용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세군의 나눔은 후원자님의 선의와 실천이 있어 가능한 일입니다.
 어둠 속에서 희망의 빛을 바라볼 수 있게 마음을 내어주신 후원자님께 감사드리며,
 귀한 마음이 가치있게 쓰일 수 있도록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구세군은 후원자님께서 만들어주신 '대한민국 나눔문화의 상징'이라는 자긍심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나눔을 다짐하는 그림일기

나눔을 다짐하는 그림일기를 그려서 해시태그(#구세군)와 함께 SNS에 업로드하거나
 거리의 자선냄비에 넣어주세요. 참여해 주시는 분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구세군과 함께 특별한 나눔의 추억을 만드세요!



월	일	요일	날씨:
제목:			



성함 연락처

12월 거리 자선냄비에 넣어주세요. 참여해 주시는 분께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발행처 구세군 한국군국

발행일 2023. 07.

홈페이지 www.jasunnambi.or.kr

대표전화 1600-0939

디자인 · 제작 (주)홍커뮤니케이션즈 www.hongcomm.com



친환경 종이와 콩기름 인쇄로 제작되어 지구 환경 보호에 앞장섭니다.